

## 해외 업계 소식

### NTT, 초당 100GB 전송 광라우터기술 개발

일본 NTT가 방대한 정보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통신 기반기술을 개발했다.

NTT는 광신호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광라우터 기술을 개발, 매초 100Gb 이상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NTT의 새 기술은 라우터가 광신호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빛의 신호를 분기점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해 반도체 회로로 진로를 바꿔주는 기존의 라우터에 비해 훨씬 빠르게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빛은 1초에 30만km의 속도로 통신망을 이동할 수 있는데, 분기점의 반도체 회로의 처리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해 지금까지는 광통신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광 라우터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신호의 진로를 제어하는 광통신 핵심장치다.

### 히타치-미쓰비시전기 비메모리반도체 통합

일본의 히타치와 미쓰비시전기가 광범위한 분야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을 통합해 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내년 4월 이전에 50대 50의 지분으로 통합회사를 설립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로직IC·아날로그 회로·이산소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시스템온칩(SoC)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담당인력을 새 회사로 이관하는 한편, 단일 브랜드를 내세워 독자적인 사업을 꾸리기

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대폭적인 판도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신생회사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24%로 15%의 모토롤러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또 SoC를 비롯한 시스템 LSI 부문에서는 인텔과 도시바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히타치는 자동차 항법 시스템과 비디오게임 기용 16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미쓰비시는 로엔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SoC 관련기술이 우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또 신생회사는 히타치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300mm 웨이퍼 가공시설을 이용, 생산비 절감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 IBM, 일본제외한 아태지역 서버시장 1위

IBM은 지난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버시장에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세계 서버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IBM은 유닉스와 인텔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아·태지역 서버시장에서도 34.4%의 시장점유율로 선두에 올랐다. 홀렛팩커드(HP·18.6%)와 컴팩(18.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선은 3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진을 보였다.

IT시장조사기관인 IDC의 아·태지역 컴퓨터 시스템 담당이사인 애브리쉬 색세나는 "이같은 IBM의 선전은 IBM 서버매출의 32%를 차지하는 P시리즈(유닉스/AIX서버) 성공에 기인한



## 해외 업계 소식

것"이라며 "이로 인해 IBM은 매출과 시장점유율에서 2000년 대비 약 5% 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여유 있게 선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시장이 IBM 아·태지역 유닉스 서버매출의 40%를 차지하면서 1위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세나는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판매 업체들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이용해 중저가대의 서버를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미들레인지와 하이엔드 유닉스서버시장에서는 '슈퍼돔(32웨이)'과 'p8400(16웨이)' 등의 강세에 힘입은 HP가 각각 32%와 35.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 일, 4월부터 무선 랜 서비스

일본서 오는 4월부터 무선 랜(WLAN)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MIS)와 NTT도코모 등 일본 통신업체들은 4월부터 도쿄 시내 중심부 23개 지점에 각각 'WLAN 접속 포인트'(access point)를 설치,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WLAN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접속 포인트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30~50m 내에서 WLAN 국제 표준 규격인 IEEE802.11b를 장착한 컴퓨터와 노트북PC 등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MIS는 4월부터 신주쿠와 시부야 등 도쿄 시내 8개 지역에서 가입자들에게 월 2400엔의 요

금을 받고 '제뉴인'(Genuine)으로 명명된 WLAN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의 제뉴인 서비스는 특히 접속포인트가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반경 100m 내에서 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장점이다.

NTT도코모도 자사의 WLAN 서비스인 '핫스팟'(hotspot)을 4월초부터 도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개시로 NTT 가입자들은 도쿄 시내 중심부의 역과 카페, 호텔로비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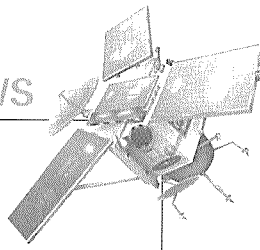
### 인도 휴대폰 단말기, 여전히 암시장이 장악

셀룰러 시장에 가격 인하 돌풍이 일고 있으나 여전히 제왕 격인 암시장이 전 모델에 있어서 시장 정상가보다 18-25% 낮은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낙관론을 펴는 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암시장이 예산안 발표 이전에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나 지금은 70-75%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 폭이 먼저 결정된 다음 암시장 가격이 그보다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암시장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가격 인하 후 148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노키아 3310은 암시장에서는 이미 1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고급 모델 모토로라 V3688 역시 가격 인하 후 246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암시장가는



195달러~205달러이다.

에릭슨 A3618의 인하가격은 133달러이나 암시장에서는 1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노키아 3330의 시장가는 181달러이며 암시장에서는 127달러이다.

그래도 시장 정상가와 암시장의 가격 편차가 31-40%에서 18-25%로 낮아졌다고 소식통은 낙관하고 있다.

암시장의 단말기 가격 인하 폭이 큰 것은 일종의 볼륨 게임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수요가 줄어든다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인하 폭이 낮아질 것이고 그 결과 정상 시장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 중 레전드, PC 주문제작 확대

중국내 PC 1위업체인 레전드 홀딩스가 주문제작 PC의 사업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레전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매리 마는 "PC교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20%의 출하증가가 예상된다"며 "주문제작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라고 홍콩에서 열린 투자 협의회에서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레전드도 주문제작 PC의 사업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본지출을 12억홍콩달러(약 2040억원)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세계 1위의 PC 업체 델 컴퓨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델은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제작

PC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러한 레전드의 발표에 대해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컨설팅기업인 ICEA 시큐리티스의 조지 찬 애널리스트는 "중국 PC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로, PC의 일반적인 교환주기가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의 PC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레전드는 해외업체들의 치열한 가격경쟁과 소비자 수요감소로 인해 PC시장의 수익감소를 겪었다. 소비자용 PC분야의 수익률은 10.59%로, 2000년의 12.93%에 비해 1.5%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PC시장에서 레전드의 시장점유율은 30.8%였으며, 델은 4.6%를 차지했다.

### 중국 Huawei Tech, 인도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출시

중국소재의 소프트웨어 회사 Huawei Technologies가 인도에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Huawei는 인도 지사에 약 3천만 달러를 더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투자액은 아마도 매년 60%씩 증가할 것이며 아웃소싱 규모도 약 30% 정도로 증가될 것이다. Huawei는 지금까지 인도 사업에 1천 7백만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지난 해 1천 4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아웃소싱 했다고 한다.

Huawei는 인포시스, 위프로, Sasken, 사티암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아웃소싱 했다.

Tatong Technologies와 ZTE와 같은 다른 중국 텔레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들도 인도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Huawei는 2005년까지 약



## 해외업계소식

1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550명의 직원 중 약 360명이 인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다.

최근 Huawei는 텔레콤 부문을 중심으로 43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China Telecom, Hutchinson, Cable & Wireless, Brazil Telecom 등이 있다.

Huawei는 매년 수익의 약 10%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에서 197개 특허를 소지하고 있다. 뱅갈로에 있는 Huawei의 연구개발 센터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3G 모바일 통신,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통신, IN(지능망), VoIP와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Huawei 인디아의 활동은 프론트엔드 공정 과정, 시스템 개념화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다양하다.

### 최고속 슈퍼컴 가동 초당 40조회 연산 수행

세계에서 처리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가 일본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어스 시뮬레이터(Earth Simulator)’로 명명된 이 컴퓨터는 초고속 병렬 컴퓨팅 시스템을 채택, 초당 40조회의 연산(40테라플롭스)을 수행한다고 이 제품을 공급한 NEC가 밝혔다.

이 컴퓨터는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내 지구환경을 분석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환경연구용으로 설계됐다.

지금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가 보유중인 IBM의 ASCI 화이트

슈퍼컴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알려져 왔는데, 이 컴퓨터의 처리속도는 12.3테라플롭스(초당 12조3000억회의 연산능력)다.

### 모토로라-노텔 무선사업 합병설

미국 모토로라와 캐나다 노텔네트웍스가 양사의 무선 네트워크 장비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비즈니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의 네트워크 사업부문은 65억달러 규모의 무선네트워크용 장비와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데 작년엔 1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에드 브린 모토로라 사장과 노텔의 고위 경영진 말을 인용, “무선 네트워크 사업을 합병하기 위해 양사가 범위·조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하며 “협상안 중에는 57억달러 규모의 노텔 무선 사업부문이 모토로라의 무선 사업부문을 인수, 독립기업으로 분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설에 대해 스콧 와이먼 모토로라 대변인은 구체적 언급을 거부하며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노텔 대변인은 “루머나 추측에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모토로라의 무선 네트워크부문은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사업 수주경쟁에 있어 그동안 에릭슨, 노키아 등 경쟁업체들보다 뒤처져 왔다. 일례로 작년엔 미 2, 3위 이동통신사업자 싱귤러와이어리스와 AT&T와이어리스가 발주한 장비 수주전에서 모토로라는 에릭슨과 노키아에 패배했다.